

전쟁과 여성의 아카이브, 허수경의 시세계

황선희

중앙대학교 강사

목차

- 1 서론
- 2 전쟁의 시간, 여성의 시간
- 3 추체험의 신체화와 ‘몸’이라는 기억의 공간
- 4 문서 바깥의 전쟁-아카이브
-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에 주목함으로써 이전 세대 여성시인들과 허수경의 전쟁시가 변별되는 지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전쟁은 한국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폭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 제국주의적 폭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허수경은 첫 시집에서부터 전쟁에 대한 통찰을 나타내며 전쟁 이후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곱씹는다. 허수경의 전쟁시에서 여성은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일상과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전쟁을 간접 경험한 세대이자 여성시인으로서 허수경은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 문서 바깥에 놓인 작은 조각들을 아카이빙한다. 허수경이 발굴한 ‘여성의 시간’은 대문자 역사가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는 허수경의 전쟁시가 간접 경험을 신체화하고 ‘몸’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형상화하게 한다. 허수경 시에서 슬픔은 전쟁 이후 생략되거나 사라져버린 자들의 ‘작은 전쟁들’을 확장하고 기억하는 감정으로 다루어진다. 여성 이방인으로서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전쟁으로 인해 끊어진 가장 약한 고리를 탐사하며, 언어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아카이브로 만들어 시화해 낸다. 이 지점에서 허수경의 전쟁시가 여성주의적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국문핵심어: 허수경, 여성, 전쟁, 아카이브, 전쟁시, 추체험, 여성주의적 전쟁시

1 서론

한국 현대시에서 여성시인이 쓴 전쟁시는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기에 이미 기성이었던 모운숙과 노천명의 시 중에서 전쟁을 다룬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시편의 시적 주체들에게서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 시의 여성 주체들은 슬픔, 분노, 고향 등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쟁의 방조자 내지는 공범으로 그려진다. 모운숙의 시 「어머니의 기도」(1951)에는 “애달픈 어머니의 뜨거운 눈엔/피 흘리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인다./주여!/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조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남성과 그의 승전을 희구하는 객체로서의 여성(어머니)의 구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역 문인 사건을 계기로 반역문화인 혐의로 반년 동안 영어(囹圄) 생활을 했던 노천명은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이름 없는 여인이 되구 싶소”(「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1953)라고 쓰면서 전쟁기의 소극적인 여성상을 드러냈다.¹

전쟁기나 전쟁 직후 쓰인 모윤숙, 노천명 등의 시에는 전쟁터에 자녀를 내보내고 승전을 염원하거나 초야에 묻혀 살아가고 싶어 하는 등 도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여성 형상이 노출된다. 이는 전쟁기에 여성이 어떤 형상으로 동원되고 이용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유의 전형적인 수사와 주제 등으로 인해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여성시를 다룰 때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 현대 시사에서 ‘여성 전쟁시’라는 지평을 열어 보이기에 이 두 여성시인들의 시는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특히 전쟁기의 여성 형상을 그려내는 방식은 몇몇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쟁으로부터 여성을 타자화, 객체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보여주는 당사자성의 한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성의 한계’만으로 그들의 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의 시를 정당화할 소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전 세대 여성시인들과 다르게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세대인 허수경(許秀卿, 1964-2018)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87년 『실천문학』 복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단에 나왔다. 1988년 첫 시집을 출간한 이후 2016년까지 총 여섯 권의 시집을 상재하였으며,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읽기에는 그 스펙트럼이 넓은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허수경은 번역서, 산문집 등 다른 장르의 글쓰기 또한 생산적으로 행했던 시인으로, 2018년 작고한 후 그 문학세계의

1 이와 관련하여 구명숙은 노천명이 6.25 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해 깊은 성찰 없이 사회를 원망하고 변명과 자학을 시에 담아 표출함으로써 사회 현실에 대해 미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구명숙, 「한국전쟁기 노천명과 모윤숙의 전쟁시 비교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7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78쪽)

총체적 조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성(성)’이나 ‘주모적 여성(성)’이라는 틀에 갇혀 해석되던 허수경의 시세계² 역시 그것을 둘러싼 오인의 역사를 극복하면서, 최근 논의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³ 최근 제출된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허수경의 시는 헌신적 사랑의 정동을 보여준 1980년대 여성 민중시의 자장 안에서 살필 수 있고,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의 일환이기도 했다. 또한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사랑’은 주모적이거나 모성적 여성에 의한 좁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애도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넓은 의미의 사랑이다. 허수경 시의 공동체 역시 고정되고 단일한 것이 아니라 확장성과 운동성을 지니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이렇듯 허수경의 시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허수경의 여러 시편 가운데서도 전쟁과 관련된 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전쟁 체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수경의 시에는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는 예가 다수 있다.⁴ 허수경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전쟁시, 추체험의 전쟁시를 썼으며 이데올로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리에서

-
- 2 송기원, 「해설-저주와 은총의 사랑」, 허수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2010(3판)(초판 1988), 147-152쪽; 오형엽, 「허수경 시의 구조화 율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 159-189쪽.
 - 3 초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여성시인 허수경의 자리를 새롭게 설정한 연구로 다음 논의를 들 수 있다.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김혜순·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 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71-304쪽; 이지은,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124쪽; 백선율·이경수, 「허수경 시의 공동체 의식 연구」, 『국제어문』 제93호, 국제어문학회, 2022, 1-239쪽.
 - 4 이혜원은 허수경의 시집 여섯 권 중 두 번째 시집을 제외하면 모든 시집에서 전쟁과 관련된 시들이 등장한다고 밝히며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을 살펴보았다. (이혜원,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과 생명의식」, 『문학과환경』 제18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9, 138쪽) 실제로 허수경의 제2 시집 『혼자 가는 먼 집』(1992)에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전쟁을 체험한 세대인 ‘아버지’가 남긴 유작 노트 형식의 시 『아버지의 유작 노트 중에서』는 전쟁보다 넓은 범주인 폭력을 다루면서 함께 살펴볼 만하다.

반전(反戰)과 비폭력의 관점을 드러낸다. 허수경과 그의 시적 주체에게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이며, 약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의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전쟁은 단지 우리가 경험한 한국전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폭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 제국주의가 자행한 폭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자 기성시인이었던 노천명, 모윤숙 등 선대 여성시인들의 경우와 변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허수경은 첫 시집에서부터 전쟁에 대한 통찰을 드러냄으로써 전쟁 이후의 폭력적 참상을 드러내고 곱씹는 모습을 보여준다.

허수경의 전쟁시에서 여성 주체는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일상과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 조선 백성들, 아이들, 노인, 여성 등은 전쟁 이후에도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과 생명의식에 대해 다룬 논의⁵, 전쟁 관련 시를 중심으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성을 다룬 논의⁶가 있기도 했지만, 선행연구의 성과에 더해 ‘기억’ 혹은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허수경의 전쟁시를 새롭게 살펴본다면 여성시인이 쓴 전쟁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 논문에서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아픈 아버지 표상, 전쟁 이후의 삶을 지키는 여성 표상, 전쟁을 미처 통과하지 못한 채 버려진 여성 표상, 검은색으로 수식되는 군인, 폭력이 지나간 자리에서 언급되는 자궁 등 다양한 시어에 주목함으로써 전쟁과 여성의 아카이브로서 허수경의 시세계를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아카이브 개념은 허수경의 시가 단순히 전쟁의 국면이나 흔적을 포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의 장으로 길어 올려 새롭게 사유했음을 밝히기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전쟁을 다룬 시편을 ‘전쟁시’로, 여성시인이 쓴 전쟁시를 ‘여성 전쟁시’로 각각 호명하고자 한다. ‘여성 전쟁시’ 중에서도 여성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경우를 한정하여 ‘여성주의적 전쟁

5 이혜원, 앞의 글, 135-166쪽.

6 김진선, 「허수경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성 연구—전쟁 관련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5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259-297쪽.

시'로 명명하고자 한다.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여성시인이 쓴 시를 들여다보
고자 할 때 이와 같은 개념어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범위는 허수경의 제1 시집부터 마지막 시집인 제6 시집까지를 포함하며⁷, 허수
경의 시세계를 '전쟁과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문 또한 참
조하였다. 허수경의 시집을 다룰 때에는 시기를 나누어 각 시기의 차이에 주목하
기보다는 모든 시기를 아울러 조망함으로써 허수경의 시세계에서 전쟁 관련 시
들이 어떤 자리에 놓일 수 있는지, 그것이 여성시인이 쓴 전쟁시를 바라보는 데
어떤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2 전쟁의 시간, 여성의 시간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서도 전쟁 관련 시를 꾸준히 써온 허수경
은 범인을 가려내는 일과 발굴을 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둘 다 어떤 특별한 상태
에서 진행된 사건의 원인 규명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탐정이 수사를
할 때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이후인 것처럼, 고고학자의 발굴도 '어떤 도시나 촌락
에서,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시작된다.⁸ 그러나 탐정소설이 범
인을 검거하면서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고고학은 유물을 발굴하고 그 속에 깃든
사실을 해석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다. 이를 두고 허수경은 '발굴
된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통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물음으로 보며, 그 물음의 중
립성이 인문학으로서 고고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라고 밝혔다.⁹ 발굴 장소의
단서들이 조각나 있는 만큼 고고학자는 과거에 만들어진 작은 단서를 놓고 사건
을 현재 속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고학적 방법은 허수경의 첫

7 이에 해당하는 허수경의 시집으로는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실천문학사, 1988 (3판 2010)), 『혼자 가는 먼 집』(문학과지성사, 1992),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창작과 비평사, 2001),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문학과지성사, 2005),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문학동네, 2011),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문학과지성사, 2016)이 있다. 지금부터 허수경의 시집 수록 시를 인용할 때에는 시와 시집의 제목만 표기하겠다.

8 허수경, 「에거사 크리스티와 고고학」,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56쪽.

9 위의 글, 58쪽.

시집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시적 사유의 한 방식이다.¹⁰ 허수경은 제1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1988)에서부터 꾸준히 전쟁의 문제를 호출하고, 시인 자신과 밀착한 여성 시적 주체를 통해 전쟁에 대한 태도를 드러냈다.

여계가 친정인가 저승인가 괴춤 전대 탈리고 은비녀도 빼앗기고 댕가지로 머리 쪽찌고 막걸리 담뱃잎 찢어 미친 달빛 눈꼬리에 돌아 허연 소곰발 머리에 이운 곰보 고모가 삭정이 가죽만 남은 가슴 풀어헤치며 6·25 이후 빼앗길 것 몽땅 빼앗긴 친정에 왔는데 기제사 때 맞춰 왔는데 쭉대밭 쇠뜨기도곤 무성한 만단정회여 고모는 어느 녀에서 이다지도 온전히 빼앗겼을거나 빼앗김만이 넉넉한 빼앗김만이 남아 귀신 보전하기 좋은 우리집이여.

—「그믐밤」(『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14쪽) 전문

[지금부터 등장하는 밑줄과 굵은 글씨는 모두 인용자의 것]

위의 시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시적 대상은 ‘곰보 고모’이다. 전쟁의 풍파가 지나간 자리에, 삭정이 가죽만 남은 가슴 풀어헤치며 돌아와 선 ‘고모’가 있고 그를 바라보는 시적 주체가 있다. 이 시에서 시적 주체는 ‘여계’(여기)가 친정인지 저승인지 물으면서 “6.25 이후 빼앗길 것 몽땅 빼앗긴 친정”의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고모’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겹쳐 놓는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인 파제일(罷祭日)의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내는 기제사의 때를 맞춰서 돌아왔음에도 ‘고모’의 친정은 ‘쭉대밭’이다. 빼앗길 만한 모든 것을 온전히 빼앗겨서, 넉넉한 것이라고는 ‘빼앗김’뿐인 친정은 “귀신 보전하기 좋은 우리집”으로도 표현된다. 시적 주체는 “고모는 어느 녀에서 이다지도 온전히 빼앗겼을거나”라고 물으며 일가의 몰락을 고모라는 여인의 무너짐과 나란히 놓는다. 이렇게 허수경 시의 여성 인물

10 서울살이의 고단함이 누적되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시달리게 되고, 허수경은 독일 유학을 떠난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허수경은 뮌스터 대학에서 ‘고대 근동 고고학’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허수경의 전공명인 ‘고대 근동 고고학’에 대해서는 전명환·이경수, 「허수경의 언어 공동체 의식과 방언시 작업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72호, 우리문학회, 2021, 460-461쪽을 참조할 수 있다.

에게 전쟁의 시간은 ‘빠앗긴’ 시간으로 그려진다.

어머니의 꿈길은 언제나 팔포 앞바다
씩어가는 굴양식장 시커먼 소금길
지리산 밤사나이 친정 오빠 거두어 태우던 삼작고개
켜켜로 내려앉은 연기로 무성하다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외로운 꿈길
가슴을 비워버린 시대는 곧잘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만
아무도 모른다 왜 어머니가 젓갈을 달이는지

(…)

갓 삼십 친정 오빠
남새파도 고랑파도 팔포바다 저리도 혼한 파도길에 쓸려
영영 돌아오지 않는 1950년의 진실처럼 아린지
어머니의 꿈길로 절며 돌아오는 반도의 발효된 꿈이어
—「젓갈 달이기」(『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44쪽) 부분

위의 시에서 시적 주체의 ‘어머니’는 갓 서른을 넘긴, ‘지리산 밤사나이’(빨치산)였던 ‘친정 오빠’를 전쟁통에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젓갈을 달이는 행위를 통해 친정 오빠를 생각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1950년의 진실”처럼 그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내 어머니의 ‘꿈길’로 ‘절며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적 주체의 외삼촌도 1950년의 진실도 아닌, ‘반도의 발효된 꿈’이다. 어머니가 왜 젓갈을 달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외롭고 서럽고 아린 것으로 기억되는 전쟁만은 씩어가는 굴의 냄새처럼 선명하고 비릿하게 떠오른다. 이 시에서 그려내는 시간은, 전쟁의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후각으로 대표되는 음식을 수단 삼아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을 재구하는 여성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어머니의 꿈길은 반도의 발효된 꿈마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시적 대상으로, 단지 여

성의 모성(성)만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¹¹

제1 시집 제2부에 수록된 ‘원폭수첩’ 연작 시편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 백성’으로서 천대받고 죽어간 민중들의 참상이 전쟁을 다룬 다른 시편에 서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전쟁의 피해자들은 “조국도 동포도 외면했던 내 썩은 삭신 사이 사이/더럽게 진물 이는 고름 흐르네//죽음조차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삶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라고 절규하며 “다시 태어나면 돌아오지 않으리/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리/식민지 백성으론 돌아오지 않으리”(「원폭수첩 1」)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원폭수첩 2」, 「원폭수첩 3」)라고 통곡하기도 한다. 이 연작 시편에서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여성의 모습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시인으로서 허수경이 ‘전쟁과 여성’의 관련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서 “전쟁의 주체는 남성인데 여성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직시한다”¹²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밀려오는 복통으로 잠 못 이뤄 통통
부은 두 다리 주무르는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원폭의 밤

칠혹 같은 어둠 저 너머
소녀는 실려가고 있었습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십만 목숨이
일거에 도륙되던 그날
번쩍이는 섬광 눈부신 불길이 오르고

11 모성(성)은 여성(성)의 일부에 해당한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모성(성)이 여성(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 ‘여성의 시간’은 ‘어머니의 시간’도 포괄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을 다룬 시에 나타나는 모성(성)은 끊임없이 재탐구될 필요가 있다.

12 이해원, 앞의 글, 152쪽.

그것으로 그만이었습시다

미치게 살 타는 비릿내
구역질 나는 거리
폐허의 거리를 트럭은 시체를 싣고
미처 숨 놓지 못한 목숨들도
마구 싣고
바다에 버리고 불로 태우고 구덩이에 묻던

원폭의 도륙보다 더 짐승 같은
도륙 속에

트럭 쾅무니에 매달려 애원하던 소녀
온몸에 불을 뒤집어쓰고
남은 숨 모두어
통곡하던 소녀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

학도보국대 미쓰비시 군수공장 잡역부
검은 몸뻐 목노발
검은 밥에 소금국
눈부신 꽃세월 마른버짐으로 피어나던
조선 소녀여
—「원폭수첩 2」(『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51-52쪽) 전문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김 씨는
외상 없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고
외면했던 소녀는 히로시마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칠 년 뒤 원폭의 자국은

김 씨를 덮쳐

아, 김 씨도 트럭 콩무니에 매달려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조국처럼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몇 번을 까무라치고 배를

움켜잡고 마루로 기어나오면

칠혹 같은 어둠 저 너머

그 소녀가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치료 한 번 못 받고 버림당한 김 씨의

느티나무 건너 천수답 나락처럼

꺼뭇게 말라가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

조국처럼

—「원폭수첩 3」(『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53-54쪽) 전문

「원폭수첩 1」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뭉뚱그려졌던 민중들의 모습은 시편이 전개됨에 따라 구체화한다. ‘수첩’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지니고 다니며 아무 때나 간단한 기록을 하는 조그마한 공책”인데, 그런 만큼 ‘원폭수첩’ 연작은 원폭으로 인해 희생된 사각(死角)지대 민중들의 면면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특히 「원폭수첩 2」와 「원폭수첩 3」은 하나의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적 대상인 ‘김 씨’와 ‘소녀’가 겹쳐지고 있어, 두 시편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더욱 잘 들여다볼 수 있다.

「원폭수첩 2」의 1연은 북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부은 두 다리를 주무르는,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에 기거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제2의 히로시마’라 불릴 정도로 원폭 피해자가 많은 경상남도 합천에는 원폭

피해자들을 기리고 지원하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¹³ 제국주의 전쟁과 원폭에 희생된 한국인 피폭자들은 조국으로부터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존재들이다.¹⁴ 잠 못 이루는 이 인물의 밤은 ‘원폭의 밤’으로 표현되는데, 2연에는 그 어둠 ‘너머’에서 실려 가고 있던 ‘소녀’가 등장한다.

소녀가 실려 가던 날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십만 목숨이/일거에 도륙되던 그날”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1945년 8월 초¹⁵의 어느 밤을 가리킨다. 아수라장이 된 거리에는 살이 타 풍기는 비린내가 가득하고, ‘시체’와 ‘미처 숨 놓지 못한 목숨들’이 트럭에 실려 영킨 채 버려지고 태워지고 묻힌다. 시적 주체는 이를 “원폭의 도륙보다 더 짐승 같은/도륙”이라고 표현하며 “트럭 꿈무니에 매달려 애원하는 소녀”에 주목한다. 산 채로 도륙당한 소녀는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라고 애원하며 통곡해 보지만 폐허가 된 거리에서 소녀의 목소리는 원폭의 불길처럼 ‘그것으로 그만’인 소리이다. 학도보국대 미쓰비시 군수공장 잡역부로 일본에 건너간 ‘조선 소녀’는 산 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1연에 등장하는 미지의 인물은 소녀의 말로와 대비되며 원폭 이후 계속되는 삶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런데 「원폭수첩 3」에 가서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김 씨”의 삶은 반전된다. 외상 없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고, 외면했던 ‘소녀’는 히로시마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뒤로 7년 뒤 원폭의 ‘자죽’¹⁶은 ‘김 씨’를 덮쳐 그 또한 트럭 꿈

13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http://www.krchcwc.or.kr/>)에 접속하여 얻을 수 있다.

14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 실태 및 주요 판결 등에 대해서는 김기진·전갑생,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2013년 합천』, 선인, 2012를 참조할 것.

15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승기를 잡은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 ‘리틀보이’를,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 ‘팻맨’을 투하한다. 두 지역에 투하된 원자 폭탄은 지상 수백m인 곳에서 폭발했지만 폭심 바로 밑에서 폭풍의 강도는 초속 수백m, 열복사선에 쪼인 표면 온도는 한순간 3000℃에 달했다. (세화 편집부, 「원자 폭탄」, 『화학대사전』, 세화, 200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04751&cid=60227&categoryId=60227>))

16 ‘자죽’의 경상 방언.

무니에 매달려 ‘조국처럼’ 버려지고 있었다. 이때 김 씨의 모습은 「원폭수첩 2」에서 ‘소녀’가 통곡하던 소리,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와 나란히 놓인다. 산 채로 트럭에 실려 가던 소녀 최후의 목소리는 합천에 사는 김 씨의 고통과 겹쳐지며 메아리처럼 반복된다. 시의 마지막 연에 가서 “치료 한 번 못 받고 버림당한 김 씨”는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라고 외치며 소녀의 비극을 재현한다.¹⁷

주디스 버틀러는 폭력이 아닌 듯 저질러지고 또 저질러지는 폭력에 저항할 때 비로소 비폭력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하며 “사회관계들의 시달림 속에서 계속 생존해나가는 것이 폭력적 권력의 최종적 타도일 때도 있다”¹⁸라고 말했다.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그 참상을 온몸으로 겪다가 산 채로 버려진 ‘소녀’는 ‘계속 생존’해나갈 일말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식민지 조선의 소녀는 전쟁이 지나간 자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그러자마자 생존권을 박탈당한 어린 여성이다. 여성 민중이자 여성시인으로서 허수경이 직시하고 발굴해 낸 여성의 시간은 이렇듯 대문자 역사가 포착하지 못했던, 낮고 여린 자리에 남겨진 상흔으로 그려진다. 가장 취약한 자리에 있는 ‘소녀’의 비극적 말로는 조선 민중 ‘김 씨’의 삶마저 흔들리게 한다.

재난이 그러하듯 전쟁 또한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가장 먼저 앗아간다. 살아감으로써 죄를 지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소녀’는 전쟁의 시간이 어떤 여성의 시간을 가장 송두리째 뒤흔들고 빼앗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시간을 박탈당하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시간의 바깥에서 삶을 굴러 가거나 잃어버리는 여성의 모습은 허수경의 다른 시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내를 여윈 아낙들은 바늘 끝으로
 사발뜨기 공그르기를 하고

17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적 고통으로 발현되는 전쟁의 후유증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만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이 수반된 정신적 고통이다”라고 이 시를 해설하기도 한다. (김진선, 앞의 글, 269쪽)

18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1, 252쪽.

인두질로 저며
주란치마 훌적삼 겹적삼을 이워내다

주단지 앞에 평상을 펴놓고
저고리 어깨에 금빛 잠자리를 수놓으며
이웃 고깃간에서 사온 돼지고기 편육을 먹다

(…)

그때 그날
항구도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쟁계시판에는 전사자 명단
다리 밑에는 고아들이
산언덕 성냥갑 같은 집에서는 과부들이
거리에서는 팔다리는 없고 심장만 남은 사내들이 떡성냥을 팔았고
—「내 마을 저자에는 주단지, 포목집, 바느질집이 있고」(『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25-26쪽) 부분

위의 시에서 ‘내 마을’에 있는 주단지, 포목집, 바느질집을 운영해 나가는 주체는 여성들이다. 전쟁으로 사내를 여의고도 ‘아낙들’은 “바늘 끝으로/사발뜨기 공그르기를 하고/인두질로 저며” 옷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옷은 사내 없는 가정의 살림을 꾸려 가는 밑천이 된다. 아낙들은 주단지 앞에 평상을 펴놓고 저고리에 수를 놓으며 “이웃 고깃간에서 사온 돼지고기 편육을 먹”는다. 사내를 여의고도 먹고 일하는 나날의 삶은 지속되는 것이다. ‘전쟁계시판’에 전사자 명단이 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많고 신체가 훼손된 사내들이 떡성냥을 파는 마을의 풍경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의 비극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남성성을 여윈 ‘내 마을’에는 그래도 주단지, 포목집, 바느질집 같은 삶의 터전이 있고,

그곳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를 지키며 삶을 굴러 나간다. 허수경의 전쟁시에서 여성의 시간은 전쟁의 시간과 여러모로 대조를 이룬다.

얼굴을 가리고 여자들은 언덕으로 도망쳤네
말을 탄 남자들이 여자들을 몰고 마을로 내려오네
울던 여자들이 어디론가 실려가네
가서 어느 낯선 곳에서 낯 모르는 많은 남자들과 잠을 자네
낯 모르는 남자와 잠을 자다가 우는 여자들이
우리 마을을 떠나 먼먼 곳에서 사네
노래를 부르네, 여자들이 웃으며 손으로 목을 조이며
그 소리는 슬픔이 날아가는 소리
날아라, 날아라 깃든 슬픔아

(…)

먼 곳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모깃불을 안고 퍼런 전파를 보다가 진짜 전장으로 가버린 남자들
남자들을 따라 전장으로 나간 여자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추었다
춤을 추다가 가끔 아편을 맞기도 했다
들판에서 단내가 녹진하게 나는 풀을 맞은 여자들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

스민 슬픔은 아물지 않고 어디론가 가고
그 자리에 검은 군인이 우리 마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다
-「검은 노래」(『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45-48쪽) 부분

위의 시에서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음에도 전쟁의 주체인 ‘남자들’에 의해 붙들려 올다가 ‘어디론가’ 실려 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여자들은 ‘낯 모르는 많은 남자들’과 잠을 잔다. 그러다가 울기를 반복하는 여자들은 ‘우리 마을’을 떠나 먼 곳에서 살며 “웃으며 손으로 목을 조이며” 노래를 부른다. 낯선 남자와 잠을 자고 울고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는 ‘여자들’의 노래가 슬픔을 날아가게 할 리는 만무하지만, 시적 주체는 그 소리를 “슬픔이 날아가는 소리”라고 표현한다. “날아라, 날아라 깃든 슬픔아”라고 말하며 시적 주체는 여자들의 ‘검은 노래’가 슬픔을 날아가게 하기를 바란다.

‘먼 곳’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여들고, 모여든 사람들 중 어떤 ‘남자들’은 ‘진짜 전장’으로 가버린다. “남자들을 따라 전장으로 나간 여자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추다가 가끔 아편을 맞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위안소의 풍경과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위의 시에서 여자들의 ‘슬픔’은 스며든 채 아물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어디론가 가버린다. 그리고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검은 군인’이 마을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으로 시는 마무리된다. 온데간데없는 여들과 그들의 노래, 그리고 슬픔은 검은 군인의 행진으로 인해 영영 간 곳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시적 주체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도 내리지 않지만, ‘검은 군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검은 노래에 담긴 슬픔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검은색으로 표상되는 전쟁은 여성들의 시간을 송두리째 침범하고 앗아가 버린다. 허수경의 전쟁시에서 ‘노래’가 슬픔과 맞닿은 예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안 마을에는 아주 오랫동안 저녁만 계속되고 있네
 해는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저녁 속에서만 산다

새침데기들은 카페에 앉아 에나멜 구두를 닦네
디스코장에서 새침데기의 다리를 만지던 건달
그들은 곧 처녀를 팔아넘길 거라네

(…)

머리가 둘 달린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나
성안 마을을 돌아다니고
머리는 하나이고 몸은 둘인 아이들은 술청에 앉아
오래된 노래를 부른다

검은 군인들이 일으킨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둘인 몸은 서로를 껴안고 하나뿐인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

노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이의 어머니인 팔려간 처녀들은 다리를 벌리며
태양 아래에 눕네 오 오
붉은 노래여

—「붉은 노래」(『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50-53쪽) 부분

이 시의 시적 배경인 성안 마을에는 아주 오랫동안 ‘저녁’만 계속되고 있다. ‘해’는 지지도 뜨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저녁 속에서만 산다”. 아침도 밤도 없이 저녁만 있는 이 마을에서, 카페에 앉아 에나멜 구두를 닦는 새침데기 여성들은 ‘곧’ 건달들에 의해 팔아 넘겨질 운명에 처해 있다. 이내 이 여성들은 팔려 가 ‘머리가 둘 달린 아이들’, ‘머리는 하나이고 몸은 둘인 아이들’을 낳는다. 머리가 하나이고 몸은 둘인 아이들은 “검은 군인들이 일으킨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둘인 몸으로 서로를 껴안고 하나뿐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린다. 전쟁의 참상 그 자체인 ‘아이들’이 슬픔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노을’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아이의 어머니’인 “팔려간 처녀들”은 또 다시 다리를 벌리며 ‘태양’ 아래에 눕는다. 아이들이 부르는 ‘오래된 노래’는 ‘붉은 노래’로 표현된다. 잠들지도 깨지도 못하는 전쟁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킨 채, 마치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듯 머무는 ‘해’는 전쟁의 주체인 남성 권력을 표상한다. 여성들은 카페에 앉아 에나멜 구두를 닦는 새침함만으로는 전쟁 중인 세계에 대응할 수 없고, 이내 물건처럼 팔려 가 기형의 아이들을 낳기에 이른다. 아이의 ‘어머니’이면서도 팔려간 ‘처녀’인 여성들은 이들을 감시하는 태양 아래서 어떤 다른 행동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전쟁의 시간은 이렇게 여성의 시간을 잠들지도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며 서서히 파괴하고 잠식해 나간다.

지금까지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에 나타나는 여성 형상을 중심으로 시적 주체가 포착한 전쟁의 상흔, 여성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처의 흔적들을 살펴보았다. 허수경의 전쟁시에서 전쟁을 겪어 낸 여성의 시간은 젓갈 달이기로 대표되는 삶의 지속으로 표상되기도 하고, 무참히 짓밟혀 막을 내리고도 다른 민중의 비극으로 재현되어 메아리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전쟁으로 인해 사내를 여윈 아낙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서도 식욕을 느끼며 고기를 사는 여성, 태양으로 대표되는 남성 권력 아래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여성 또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여성들의 시간을 조망하게 한다. 시적 주체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전쟁을 통과한 ‘어머니’와 전쟁의 시간 속에 간혀버린 ‘소녀’의 마음을 짐작하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찰적 시선을 지닌 존재이다. 전쟁의 시간 바깥에서 전개되는 시적 주체의 시선은, 전쟁의 시간과 여성의 시간을 함께 겹쳐 놓음으로써 전쟁이 남기고 간 흔적이 여성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훑아보게 만든다. 시적 주체의 이러한 태도는 단지 시선에만 머물지 않고 추체험을 신체화하고, 겪지 않은 일을 몸으로 기억하여 간직함으로써 시적 공간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3 추체험의 신체화와 ‘몸’이라는 기억의 공간

허수경은 “어떤 이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¹⁹라며 그것은 답이 있거나 시선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허수경의 전쟁시에 나타나는 여성 형상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발화를 하는 데

19 허수경, 「시인이라는 고아」, 『가기 전에 쓰는 글들』, 난다, 2019, 359쪽.

서 그치지 않고, 전쟁의 경험과 기억을 신체에 새겨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적 주체는 전쟁 관련 시편의 여성 형상을 통해 자신이 추체험한 전쟁을 신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나간다. 전쟁터의 피폭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소녀의 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젖갈을 달이는 어머니의 손 또한 추체험을 신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체험의 신체화가 나타나는 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 시집에서 허수경은 “마음끼리 헤어지기 싫어할 때 견딜 수 없는 몸은 마음으로 들어온다 에이 바보같이 에이,/마음의 어깨 마음의 다리 마음의 팔이 몸을 안는다”(「사랑의不善」, 『혼자 가는 먼 집』, 33)라고 쓴다. 허수경의 시세계에서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은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유 방식은 시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허수경이 남긴 시론에도 균열의 순간에 균열을 감지할 때 온전히 ‘몸’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²⁰

피로 이어지는 천역의 삶

더 이상은 남기지 말자

두번째 유산을 하고 쓰러질 듯 돌아오는
 최 여인은 원폭캐로이더로
 사지무기력증에 빠진 조국의 개망초 독길을 걸어오는
 최 여인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남기지 말자

설핏 노을이 지고

20 “수많은 우연의 순간에서 시는 나온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한시라도 시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균열의 순간에 균열을 경험하지 못한다. 순간을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비슷한 순간을 시 언어로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비슷하지 그 순간이 아니다. 균열을 감지할 때 온전히 경험을 해야 한다.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허수경, 앞의 글, 358쪽)

어느새 만월

한 번도 온전하게 채워보지 못한

거덜난 원폭의 자궁

태어나면 천역을 온몸에 이고

서럽게 살아야 할 아기는

에미 칼에 찢려 피투성이로 뒹굽니다

남기지 말자

용서해라

나의 자궁은 저 만월만큼 딱 차보지 못할지니

조국이여

빼앗기기만 했던 원통한 에미의 삶과

에미한테 죽은 아기의 태어나지 않은 꿈과

—「원폭수첩 4」(『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55-56쪽) 전문

위의 시에서 시적 주체는 “두번째 유산을 하고 쓰러질 듯 돌아오는 최 여인”의 다짐—“피로 이어지는 천역의 삶/더 이상은/남기지 말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폭 피해자인 ‘최 여인’은 원폭캐로이더로 사지무기력증에 빠지는 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 유산 후 조국의 개망초 독길을 걸어오는 중이다. ‘남기지 말자’라는 발화의 반복은 노을이 지고 만월이 뜬 밤하늘로 이어지며 최 여인의 처지를 부각한다. 만월이 뜬 밤에 비해 최 여인은 “한 번도 온전하게” ‘자궁’을 채워본 적 없는, 거덜 난 자궁을 소유하였다. 타의로 인해 ‘만월’을 품을 기회를 영영 빼앗긴 최 여인에게 “태어나면 천역을 온몸에 이고/서럽게 살아야 할 아기”는 그저 짐이고 죄일 뿐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낳는 것보다 죄를 덜 짓는 길이라고 판단한 끝에 아기를 지우고 돌아오는 최 여인은 “용서해라/나의 자궁은 저 만월만큼 딱 차보지 못할지니”라며 체념조로 말한다. 그러면서 ‘조국’에게 “빼앗기기만 했던 원통한 에

미의 삶과/에미한테 죽은 아기의 태어나지 않은 꿈과” 더 많은 것들을 차마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만월이 되지 못하는 최 여인의 자궁을 묘사한 후부터 시적 주체의 목소리는 최 여인의 것과 뒤섞인다. 최 여인의 ‘자궁’으로 대표되는 여성 피해자들과 말해지지 못한 그들의 발화를 시적 주체는 몸과 관련하여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레인 스캐리는 “몸에 기억된 것은 오래 기억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억을 없애려면 몸 자체에 직접 침투해 몸을 바꾸고 상처를 입혀야 할 것”²¹이라고 말한다. 특히 전쟁은 집요하고 가차 없이, ‘훼손되고 벌어진 인간 몸 내부의 내용물’을 취해서 ‘전쟁 내부의 내용물’로 삼는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²² 전쟁의 상흔에 저항하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반복하고자 하는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들은 시적 주체가 추체험한 전쟁을 신체화함으로써 ‘몸’을 공적인 자리에 가져다 둔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가 추체험한 전쟁의 면면은 제1 시집에 수록된 ‘조선식 회상’ 연작 시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식 회상 3」에서는 기미가요가 울리면 경례를 올리고 일장기가 올라가면 부동자세로 서는, “진주중학 2학년”이던 ‘아버지’가 등장한다. “내일이면 학병으로 떠나야 하는데/시간이 없는 그들은/언제나 충분히 말해주지 못”하고, 소년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소년’은 그림자가 자기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에 화들짝 놀라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적 주체와 조우하기도 전인 중학 2학년생인 소년을 시적 주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점은 독특하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나 소년-아버지를 통해 추체험된 전쟁의 기억을 시적 주체는 시화한다. 거기에는 어설피 경례를 올리고 부동자세로 섰을 아버지의 몸이 있다. 이 시의 말미에 나타나는, “왜 그림자가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지”라는 아버지의 발화는 그의 시점에서 현재이면서 시적 주체의 시점에서는 오래된 과거인 시간에, 현재가 드리운 그림자에서 어렵듯이 자신의 미래를 본 결과라고 읽어볼 수 있다. 다음 시에서 시적 주체는 전쟁과 청년, 집으로 돌아온 청년-아버지의 과거를 그려

21 일레인 스캐리, 메이 역, 『고통받는 몸—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봄, 2018, 181쪽.

22 위의 책, 134쪽.

낸 후 자신이 그의 ‘딸’임을 밝히고 있다.²³ 딸의 존재는 아버지가 신체화된 자신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인이자 그 결과로 읽어낼 수 있다.

전쟁은 아름다운 청년들 곁으로 물어 들어왔습니다 적산가옥 지하 독서서클에도 명동과 고전 찻집에도 학비 대어주던 신생독립국 개발지 채석장 등짐에도 연인들에게도 투사들에게도 세포조직 연락원의 불안한 아침상 위에도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수도인 서울은
그때도 이 나라 수도였던 서울은
경상도 진주가 고향인 청년들의 이상 속에 제각기 다른 삶의 질서를
구겨넣었습니다 스물 남짓의 청년들에게 재빨리 다가와 삶을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

달이 떴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가까운 포성 속에 흩어져 갔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지?

나,

나는 집으로 간다

그리고 세 청년은 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요시다 겐지로 전집이 세 청

23 이경수는 허수경 시에서 ‘아버지-딸’로 이어지는 관계에 주목하며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모성애적 사랑으로 귀착하던 기존 논의의 관습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여성시로서 허수경의 시가 어떤 주체와 정동을 드러내는지 검토한다. (이경수, 앞의 글, 37-78쪽)

년의 붓짐 속에 무거운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초순. 서울. 남산.

그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의 어깨를 안마하는 내가

그의 딸입니다

—「조선식 회상 9」(『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125-127쪽) 부분

위의 시는 학병 세대였던 아버지 세대 청년들의 징집 전후 풍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쟁’은 ‘아름다운 청년들’ 곁으로 묻어 들어와 전산가옥 지하 독서서클, 명동과 고전 찾집, 신생독립국 개발지 채석장 등짐, 연인들, 투사들, 심지어는 세포조직 연락원의 ‘불안한 아침상’ 위에도 있다. 어느 곳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기에 허수경의 고향이기도 한 경상도 진주가 고향인 ‘세 청년’은 “제각기 다른 삶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삶을 결정하게 된다.²⁴ 중략된 부분에는 인민해방전선을 택한 한 청년, 자유 진영의 우방을 택한 다른 청년의 곁이 담겨 있다.

“자네는 어디로 가지?”라는 질문에 대해 “나,/나는 집으로 간다” 하고 답한 마지막 청년은 시적 주체의 ‘아버지’이다. 시의 말미에 가서 시적 주체는 “집으로 돌아온 청년의 어깨를 안마하는 내가/그의 딸입니다”라고 밝힌다. 동료들에 비해 어수룩하고 신념 없는 것처럼 묘사되던 ‘나’의 ‘청년-아버지’는 고향을 떠났다가도 고향에 되돌아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 그의 ‘어깨’를 안마하는 시적 주체의 손길에는 아버지를 향한 감정의 더께가 묻어 있다. 청년-아버지가 체험한 전쟁의 기억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통해 시적 주체에게 소환되고 추

24 허수경 시의 서울 표상에 주목한 공현진은 “그때” 삶을 결정하여 집으로 돌아왔던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집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때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현진, 「허수경 시의 서울 표상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 236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7, 369쪽) 그에 따르면 시적 주체에게 ‘서울’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개인의 삶에 새겨넣게 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각 진영의 이념이 교차하며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표상”(위의 글, 같은 곳)된다.

체험된다. 소년-아버지였고 청년-아버지였던 아버지는 이후에 배치된 ‘조선식 회상’ 연작에서 ‘아버지’로 표현되며 “전쟁 후 십여 년 동안 떠돌아다닌/병역기 피자 출신 로맨티스트”(「조선식 회상 13」), 실존적이고도 현실적인 ‘배고픔’을 만나는 존재(「조선식 회상 11」) 등으로 묘사된다. ‘조선식 회상’ 연작은 아버지의 체험을 추체험한 딸의 관점으로 전쟁의 기억을 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까마귀 걸어간다
노을녘 해를 향하여

우리도 걸어간다
노을녘
까마귀를 따라

결국 우리는 해를 향하여,
해 질 무렵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해 뜰 무렵 해를 향하여 걸어갔던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나이 어려 죽은
손발 없는 속수무책의 신들이 지키는 담장 아래 살았던 아이들

단 한 번도 죄지을 기회를 갖지 않았던
아이들의 염소처럼 그렇게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던
해 뜰 무렵

아이와 엉겨 있던 염소가

톡 톡 자리를 털면서
배고파, 배고파, 할 때

눈 부비며 염소를 안던
아이가 염소에게 주던 마른 풀처럼
마른 풀에 맺힌 첫날 같은 햇빛처럼

—「해는 우리를 향하여」(『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40-41쪽) 전문

위의 시가 수록된 제4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뒤표지에서 허수경은 “나는 나를 부리고 간 말들이 이를테면 2003년 가을 어느 날, 경찰이 되어 어린 딸 아이와 늙은 어미를 먹이기 위해 검문소 앞에 줄을 서 있다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은 한 이라크인을 위해 있었으면 했다. 말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좌절의 경험이 이 현대사에는 얼마든지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썼다. ‘청동’으로 표상되는 전쟁과 ‘감자’로 표상되는 나날의 삶은 1992년 독일 이주 후 줄곧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허수경에 의해 그 자리를 확장하기에 이른다. 전쟁은 여전히 불가해한 것이고 직접 체험할 수 없던 것이지만, 동아시아 끝자락의 ‘조선’과 제국주의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확장된다. 전쟁은 이전보다 추상적으로 그려지지만 이는 그만큼 허수경 시의 전쟁이 보편성을 획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허수경의 이주 체험과 긴밀하게 연계된다.²⁵

허수경의 시세계에서 ‘걷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인은 때로 이방의 거리를 ‘너 없이’ 걷기도 하고²⁶, 위의 시에서처럼 걸음으로써 ‘소문’으로 듣던 전쟁과 마주하기도 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걷는다는 것은 기억을 만들어 내거나 곱씹고, 추체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시는 까마귀와 ‘우리’ 모두 노을녘 ‘해’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결국 우리는 해를 향하여,/해 질 무렵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적 주

25 허수경의 독일 이주 전후에 대해서는 제3 시집에 수록된 신경숙의 발문 「詩로 가는 길」(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91-108쪽)을 참조할 수 있다.

26 허수경, 『너 없이 걸었다—핀스터』, 난다, 2015, 23쪽.

체는 “해 뜰 무렵 해를 향하여 걸어갔던 이들도 있다”라는 소문을 전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표상으로 그려지는 ‘해’는 위의 시에서 부정적인 표상으로 그려진다. 해 뜰 무렵 해를 향해 걸어갔던 이들은 이를테면 “나이 어려 죽은/손발 없는 속수무책의 신들이 지키는 담장 아래 살았던 아이들”인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죄 지을 기회를 갖지 않았던” 염소처럼 단 한 번도 죄 지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죄 지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살아갈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던 해 뜰 무렵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전쟁 중의 한 풍경일 따름이다.

이름 없는 집단 무덤

해골 없이 다리뼈만 남아 있거나 마디가 다 잘린 손발을 가진 그대들
 해와 달이 다 집어먹어버린 곤죽의 살덩이들은
 흙이 되어 가깝게 그대들의 뼈를 덮었는데
 아직 흙에는 물기가 남아 있어
 비닐봉지에 그대들을 담으면 송송 물이 맺힙니다
 —「새벽 발굴」(『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45쪽) 부분

허수경은 “고고학적인 사실, 이라는 거창한 말 속에는 발굴의 우연이라는 작은 괄호가 언제나 들어 있기 마련”이라면서 “아무리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은 과거는 고고학적인 사실로 들어오지 않는다”²⁷라고 썼다. ‘집단 무덤’ 안에 서로 엉킨 채 ‘발굴’된 ‘그대들’은 해골도 없이 다리뼈만 남아 있거나 손발의 마디가 다 잘려 있다. 해와 달에 먹힌 살덩이들은 곤죽이 되었고 흙처럼 변해 ‘그대들’의 뼈를 뒤덮었다. ‘그대들’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는 몸의 흔적은 그 슬픔을 증언하기라도 하듯 ‘물기’가 남은 흙 사이에서 비닐봉지에 담기며 “송송 물이 맺”힌다.

‘몸’은 삶의 유한성과 취약성, 행위주체성을 암시하며 시선, 접촉, 폭력의 행

27 허수경, 「‘그들’과 ‘신들’, 그리고……」,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65쪽.

위주체이자 도구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게 만든다.²⁸ “공적 영역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인 내 몸은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니”며, 애초에 ‘타인의 세계’에 넘겨지는 몸에는 “그 세계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고 몸은 사회적 삶의 용광로에서 형성된다”²⁹. 몸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위의 시에서 ‘물기’로 표상되는 슬픔 역시 마찬가지이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지극히 사적이고 탈정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같지만, 버틀러가 지적한 대로 슬픔은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이론화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부각하며, “복잡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제공”³⁰한다. 슬픔의 정치적 함의는 세계의 흔적을 담은, ‘몸’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통해 확장되고 깊어진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는 추체험한 전쟁을 ‘몸’이라는 기억의 공간에 새겨넣고 신체화함으로써, 뭍을 갖지 못하고 생략되거나 사라져버린 이들의 ‘작은 전쟁들’을 아카이빙한다.

4 문서 바깥의 전쟁-아카이브

전쟁의 당사자가 남긴 시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모든 전쟁의 기억이 당사자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서에 편입되지 못한 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기억은 허수경의 시적 주체와 같은 전쟁 비당사자들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오카 마리는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된다”³¹라고 하며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는 것이 ‘사건’ 외부의 살아남은 자들, 타자들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필연적으로 과잉되어 있고 잉여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건의 기억은 타자에 의해서 대신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억을 분유(分有)하는 일은 중요하다.

28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55쪽.

29 위의 책, 56쪽.

30 위의 책, 50쪽.

31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47쪽.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은, 심지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가 마치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뒤집혀’ 보일 때, “허무주의에 빠지는 대신 그것이 뒤집힌 환등 상임을 폭로하려면” 다른 아닌 ‘비판적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말했다.³² “문서로 남지 못한 청맹과니 역사”(『국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45)를 아카이브로 엮어 내기 위해서는 경직된 허무주의가 아닌 객관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것이다.³³ “해방이 되자 밤의 일은 공개되지 않고/낮의 일은 공개되었다 해방이 되자/낮의 일도 잊혀지고 해방이 되자/낮의 일도 밤의 일도 잊혀지고”(『조선식 회상 4』, 위의 책, 114)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역사는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낮의 일도 밤의 일도 잊어버린 채 기록된 역사 안에 갇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허수경은 언어화되거나 역사화되지 못한, 문서 바깥의 기억들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아카이빙했다.

그해 들판에는 해도 자주 나와서 여자들의 등을 만져주다 여자들은
 해를 꺼안고 깊이 잠이 들기도 하다 바람이 지나갈 때 잠깐 깨어나서 눈
 을 부비다 구름은 나죽하고 하늘은 깊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
 리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처럼 맑다 여자들은 다시 눈을 감으며 멀리
 잠이 들다 그해 사라진 여자들이 있다 그해 들판에서 많은 짐승들이 평
 안할 동안 멀리 잠이 든 것처럼 사라진 여자들이 있다

—「그해 사라진 여자들이 있다」(『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56쪽)

부분

허수경은 제4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2005)에 묶인 시들을 “反전쟁시라고 부르고 싶다”라면서 가깝거나 먼 전쟁의 시기에 쓰인 시, “전쟁을 직접 겪지

32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1, 188쪽.

33 18세기 파리 형사사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여성, 빈민, 대중 행동 등을 연구해 온 아를레트 파르주는 “아카이브와의 거리를 잃지 않으려면 아카이브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아를레트 파르주, 김정아 역, 『아카이브 취향』, 문학과지성사, 2020, 92쪽)라고 말했다.

않은 한 인간이 쓰는 **反전쟁에 대한 노래**³⁴로 자신의 시를 해설한다.³⁵ 위의 시에서 ‘그해’는 전쟁이 일어난 해로 짐작된다. 앞서 살펴본 시에서 부정적인 표상으로 나타나던 ‘해’조차 “자주 나와서 여자들의 등을 만져주”던 그해의 평온은 오래 가지 못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는 이상하게도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처럼 맑은데, 그 소리가 들려온 후 여자들은 “다시 눈을 감으며 멀리 잠이” 든다. 이때 ‘멀리’ 잠이 든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다가온 ‘그해’에 들뜬 상태에서 많은 짐승들이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자들은 ‘멀리 잠이 든 것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어난 전쟁에서 기인했을 여자들의 실종은, 위의 시에서 줄곧 시제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서술된다. ‘만져주다’, ‘부비다(비비다)’, ‘맑다’, ‘있다’ 등의 서술어들은 형용사나 동사의 기본형으로서, 과거나 현재 등 시제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서술은 시인이 의도한 섬세한 기술의 결과로, ‘사라진 여자들’의 일이 특정 시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문서 바깥의 삶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비록 문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시적 주체가 전쟁에 대한 기억의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할 때 ‘사라진 여자들’은 중요하게 채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여자들이 만들어 낸 모든 장면들은 어떤 시제도 적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거인 동시에 현재이자 곧 미래이다.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편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단선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회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시간으로 그려진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나날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곳에서는 비행기가 날고 거리에는/아직 제가 태어난 곳을 잊지 못하는 아이들”(「그때」,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59)이 공존하듯이 기억과 우리는 강하게 결속

34 허수경, 「시인의 말」,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3쪽.

35 허수경 시가 지니는 이와 같은 태생적 속성은, 여성시와 아이러니를 묶어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승희, 김혜순, 최승자 시의 아이러니를 상향의 아이러니, 시적 공간의 아이러니, 언술의 아이러니 등 세 가지 층위에서 논의하면서 여성시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아이러니와 시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 황선희, 「한국 현대 여성시의 아이러니 연구—김승희·김혜순·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239쪽을 참조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이다.

네가 들어갈 때 나는 나오고 나는 도시로 들어오고 너는 도시에서 나
간다

너는 누구인가 내가 나올 때 들어가는 내가 들어올 때 나가는 너는 누
구인가

우리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지, 모든 도시의 어머니라는 그 도시에서
도시의 역전 앞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너는 그때 죽었지 나는 자랐는데
너는 먼지가 되어 도시의 강변을 떠돌았지 그리고 그날이었어 전철문이
열리면서 네가 나오잖아 날 바라보지도 않고

나는 전철문을 나서면서 대답한다 나는 고대 왕무덤에서 나온 토기였
다가 그 토기의 입이었다가 텅 빈 세월이었다가 구겨진 음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창녀의 방 창문에 걸린 커튼이었지 은행 금고 안에 든 전쟁이
었다가 아프가니스탄 고원에 핀 양귀비였다가 나는 실향민 수용소의 식
당에서 공급해주던 수프였다가 나는 빛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언제나
서 있기만 했던 시였지 그리고 일용 노동자로 눈 덮인 거리를 헤매던 나
의 혈육이었어 저 멀리 용산참사의 시체가 떠내려가던 어떤 밤에 아무
런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울던 소경이었어

—「열린 전철문으로 들어간 너는 누구인가」(『벌어먹을, 차가운 심
장』, 56-57쪽) 부분

위의 시에서 시적 주체 ‘나’는 ‘너’가 들어갈 때 나오고 나갈 때 들어오는 존재이
다. 거꾸로 뒤집으면, ‘너’는 ‘나’가 나갈 때 들어오고 들어올 때 나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만 같은 ‘너’에게 그 존재에 대해 물으면서도 시적 주체는 “전
철문을 나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한다. 그중에서도 “은행 금고 안에 든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고원에 핀 양귀비”, “실향민 수용소의 식당에서 공급
해주던 수프”, “저 멀리 용산참사의 시체가 떠내려가던 어떤 밤에 아무런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울던 소경” 등을 주목해 볼 만하다. ‘나’는 문서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기억 속에는 살아서 남아 있는 것들이다. ‘너’는 그 정체를 알기 어렵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도시의 어머니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나’가 태어난 순간 죽어버린 존재, 시적 주체가 자랐는데 자신만은 먼지가 되어 도시의 강변을 떠도는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나’와 ‘너’는 운명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반대되는 존재는 아니다. 문서 바깥에 자리한 시적 주체는 다양한 폭력이 전개될 때마다 행동하지 못한 채 어떤 ‘상태’로서 있어 온 존재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떠돌고 전철을 탈 수 있음에도 시적 주체에게는 능동성이 결여되거나 박탈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아카이빙하는 시적 주체의 모습은 자신에게 ‘너’를 궁금해하는 능동성의 지점에 나아가게 한다.

해초들이 괴로운 태양을 바라보며 주름진 물결을 지상으로 던진다 마치 태양이 유괴했던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지난밤, 잠이 들기 전에 해두었던 메모는 아무 소용 없다 아직 가지 않은 바닷길들이 어두운 안경을 쓰고 우울증에 걸린 여신들을 안아준다

(…)

시간들은 역사에 들어가지 않은 파편, 파편의 시간 속에 일그러진 자연, 위장 속에 든 저 토마토밭, 그러나, 여자들이 울면서 바다를 지나갈 때 오 신이여, 라고 울면서 걸어가던 남자들은 산으로 들어간다 살인자가 되어 마을로 돌아와 검은 죽을 마실 때, 문득 당신은 물었다 부모가 누구요? 나의 고향은 영원한 실업자들만이 살던 나라지요 적은 양식으로만 끼니를 잇다가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으로 용병을 하러 떠나기도 했던 전 세기의 남자들이 먹는 검은 죽은 끓이는 불이지요

—「바다 곁에서의 악몽」(『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110쪽) 부분

위의 시에서 해초들은 ‘괴로운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이 유괴했던 시간’을 버리

는 것처럼 주름진 물결을 ‘지상’으로 던진다. 지난밤 잠이 들기 전에 해두었던 메모는 무력하기만 하고, ‘아직 가지 않은 바닷길들’만 어두운 안경을 쓴 채 ‘우울증에 걸린 여신들’을 안아준다. 다소 추상적인 이 시의 사유는 시간에 대한 사유로 전개된다. “시간들은 역사에 들어가지 않은 파편”이고 자연은 “파편의 시간 속에 일그러”졌다는 것인데, 이는 역사나 문서에 편입되지 못한 바깥의 것들을 연상케 한다. ‘여자들’은 울면서 바다를 지나가고, ‘남자들’은 울면서 걸어가다가 산으로 들어가 살인자가 된 후 마을로 돌아온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당신’이 “부모가 누구요?”라고 묻자, 검은 죽을 마시던 남자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남자의 고향은 ‘영원한 실업자들’만이 살던 곳이고, 힘겹게 끼니를 이어가다가 용병으로 떠나기도 했던 ‘전 세기의 남자들’이 먹는 검은 죽을 끓이는 불이다. 기록되지 않았으나 기억될 수 있는 전쟁의 면면을 그려 보이는 허수경의 시에서 이름 없는 이들과 이름 없는 것들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름 없는 섬들에 살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이름 없는 것들이지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여도 좋다고 말하던

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 같지 않나요

이름 없는 세월을 나는 이렇게 정의해요

아님, 말 못하는 것들이라 영혼이 없다고 말하던

근대 입구의 세월 속에

당신, 아직도 울고 있나요?

오늘도 콜레라가 창궐하는 도읍을 지나

신시(新市)를 짓는 장군들을 보았어요

나는 그 장군들이 이 지상에 올 때

신시의 해안에 살던

도롱뇽 새끼가 저문 눈을 꺾벅거리며
달의 운석처럼 낯선 시간처럼
날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면 나는 당신이 바라보던 달걀 프라이였어요
내가 태어나 당신이 죽고
죽은 당신의 단백질과 기름으로
말하는 짐승인 내가 자라는 거지요

이거 긴 세기의 이야기지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야기지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132-133쪽)

전문

위의 시에는 이름 없는 섬들, 이름 없는 것들, 이름 없는 세월 등 ‘이름 없는’ 존재들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이름 없는 섬들에서 이름도 없이 살던 짐승들은 죽어가고, 그 모습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어도 좋다고 말하던/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을 닮았다. 이는 시적 주체가 ‘이름 없는 세월’을 정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말 못하는 것들’은 ‘영혼’³⁶이 없다고 말하던 세월이며, “근대 입구의 세월”로 불린다. 도입에는 콜레라가 창궐하고 새로운 도시를 짓는 장군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이곳에 올 때 시적 주체 ‘나’는 도롱뇽 새끼가 눈을 꺾박이며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바라보는 존재를 응시하는 시적 주체는 긴 세기에 걸쳐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야기는 공적 역사에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었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

36 허수경의 시세계에서 ‘영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오형엽은 허수경 시의 ‘영혼’을 “전쟁과 폭력과 죽음의 문명사라는 비극적 운명에 맞선,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파악했다. (오형엽, 앞의 글, 170쪽) 백선율·이경수는 허수경 시의 ‘영혼’ 표상을 “‘죽어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시적 주체의 몸바꿈”으로 해석했다. (백선율·이경수, 앞의 글, 153쪽)

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록 이름이 없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긴 세기를 지나서도 전해질 필요가 있다. 전쟁과 그 이후를 기억하는 시적 주체에게 역사와 문서 바깥의 전쟁-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게 그려진다.

유모차 느리게 지나가는 지팡이 짙은 노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 학생들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 비둘기들 최루탄 죽어서 해안으로 밀려온 멩크고래 백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서 대양을 건넌다는 새들 사기꾼의 얼굴 선의와 악의가 겹치는 회색의 지점에 비는 내리고 지중해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이 독일의 도시를 걸어다녔지 저 성당 앞에서 죽은 채 뻗어 있는 지빠귀 좀 봐. 그 옆에서는 이 봄의 매발톱꽃이 피어나는데 국회에서는 난민 때문에 드는 돈은 누가 부담할 거냐고 묻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21세기의 일입니다

가축을 실어나르는 배로도 쓰이지 못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울었던 울음은 에볼라의 열로 죽었습니다

왜 멩크고래는 해안으로 죽은 채 걸어왔을까요

사천여만 원에 낙찰되어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되었을까요

멩크고래는 대한민국과는 아무 상관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데요

빛을 집어먹는 무언가가 봄저녁에 꽃잎을 지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 새 없이 운다

—「유령들」(『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108-109쪽) 부분

허수경의 마지막 시집에 수록된 위의 시에서도 시적 주체는 ‘유령들’로 치부되어 온 이들에게 시선을 던진다.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국지전으로만 그려지지 않고,

세계의 온갖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건으로 표현된다. 거기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뿐 아니라 ‘죽어서 해안으로 밀려온 밍크고래’, ‘죽은 채 뺨에 있는 지빠귀’ 등이 포함된다. 미물로 여겨질 수 있는, 말 못하는 비인간 존재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국회에서는 난민 때문에 드는 돈은 누가 부담할 거냐고 묻는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두고 시적 주체는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21세기의 일”이라고 말한다.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던 사람들은 에볼라의 열로 죽어 나가고, 밍크고래는 ‘죽은 채’ 해안으로 걸어온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덕도 보지 못했는데도 밍크고래는 거액에 낙찰되어 국고에 귀속된다. 난민을 만들고 그들을 죽게 만든 전쟁은 ‘유령들’을 양산하며 그 폭력을 은폐한다. “빛을 집어먹는 무언가가 봄저녁에 꽃잎을 지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쉼 새 없이 온다”라는 위 시의 마지막 구절은 난민들이 ‘울었던 울음’과 겹쳐지면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유령들의 면면을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한다.

발신자: 고대의 여름

수신자: 현대의 겨울

안녕,

다시 가보지 못할 폐허여

경적을 울려대며 사방팔방에서 밀려 나오던 낡은 차들이여

소리소리 지르며 혁대를 팔던 소년들이여

양의 피가 바닥에 흐르던 시장이여

초와 비누 대추야자와 강황 가루를 팔던 거리여

날아가던 총알에 아이의 심장이 거꾸러져도

아무도 그 심장을 거두지 않던 오후여

얼굴에 먼지와 피를 뒤집어쓰고

총 쏘기를 멈추지 않던 노인이여

붉은 양귀비꽃이 뒤덮인 드넓은 들판이여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터지던 지뢰여
중으로 팔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던 소녀들이여

이 이상하게 빠른

이 가벼워서 낮설디낮선 시간이여

—「카프카 날씨 2」(『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140-141쪽)

전문

고대의 여름이 현대의 겨울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구성된 위의 시는, ‘폐허’에
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대의 여름이 현대의 겨울을 두고 ‘다시 가
보지 못할 폐허’라고 지칭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시에서 시적 주체는 시제
를 뒤섞으며 고대와 현대를 넘나든다. 시적 주체가 말하는 그곳은 소년들, 시장,
거리가 있고, “날아가던 총알에 아이의 심장이 거꾸러져도” 누구도 그 심장을 거
두지 않던 곳이다. 거기에는 먼지와 피를 뒤집어쓰고도 ‘총 쏘기’를 멈추지 않던
노인이 있고,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터지던 지뢰”와 “중으로 팔려가서 영영 돌
아오지 않던 소녀들”이 있었다. 고대인지 현대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적 배경에 대해 시적 주체는 “이상하게 빠른”, “가벼워서 낮설디낮선
시간”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붙여 준다. 그리고 이 빠르게 뒤섞인 시간에게 시인
은 ‘카프카 날씨’라는 제목을 붙여 준다.

아카이브 작업자는 진술의 언어에 바짝 다가가서 통상적 사건과도 다
르지만 예외적 사건과도 다른 특별한 사건을 섬세하게 분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건을 서사화할 수 있는 화법(특별한 사건의 불균질한 측면들
을 복원하는 화법, 특별한 사건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다른 사
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화법, 재구축하면서 동시에 해체하
는 화법, 같음과 다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화법)을 찾아내야 한다.

—아를레트 파르주, 김정아 역, 『아카이브 취향』, 문학과지성사, 2020,
113-114쪽.

아를레트 파르주는 아카이브에 좌초해 있는 진실의 작은 ‘조각들’, 언어화되지 못한 것들을 비로소 찾아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시인이자 고고학자였던 허수경은 “발굴을 하는 자에게 폐허 도시는 잊힌 도시가 아니다. 자신의 환상 속에서 움직이고 자신을 구속하는 살아 있는 현재이다.”³⁷라고 쓴 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문서는 “그 문서들이 유효하던 시기가 아닌 그 시기가 지나고 아무도 문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³⁸이라고 썼다. 이는 위의 글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건을 서사화할 수 있는 화법”(특별한 사건의 불균질한 측면들을 복원하는 화법, 특별한 사건의 독자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다른 사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부각하는 화법, 재구축하면서 동시에 해체하는 화법, 같음과 다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화법)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원폭수첩’ 등 주요 연작 시편을 통해 전쟁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고고학자의 시선을 보여주었던 만큼, 허수경의 시세계에는 문서 바깥에 놓인 채 기록되지 못했던 추체험의 사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허수경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시적 주체가 전쟁이라는 사건과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시편에서 전쟁을 보편적인 폭력의 문제로 그려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국지전으로서의 전쟁(들)은 사건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시적 주체의 시선과 만나 세계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타자화된 존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도 그들에 대해 온전히 알 수는 없음을 전제하는 여성 이방인으로서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가장 약하고 낮은 존재를 탐사하며, 언어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아카이빙해 시화해 낸다.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가 보이는 여성주의적 속성은 이 지점에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허수경은 초기시에서부터 일관되게 전쟁과 그것이 남긴 기억을 시화하는 데 집

37 허수경, 「바빌론」,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23쪽.

38 허수경, 「글쓰기, 라는 것의 시작」, 앞의 책, 37쪽.

중한 바 있다. 이때 전쟁은 여성인 시적 주체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한, 그러나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서 또렷한 고통을 안겨주는 기억으로 그려진다. 서러움, 외로움, 고통 등의 감정어들은 전쟁이야말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허수경의 시적 주체에게 전쟁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해명되지 않는 공백으로 그려진다. 전쟁을 다룬 허수경 시의 이러한 경향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며, 이때 시적 주체는 전쟁이 일어났던 시간의 바깥과 공간의 바깥에 기거하며 비-당사자성을 보여준다.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편을 여성주의적 전쟁시로 호명할 수 있는 까닭은 이렇듯 시적 주체가 서 있는 자리가 타자화된 존재들을 들여다보는 여성 이방인의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후기로 갈수록 전쟁 관련 시편에서 다루는 전쟁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소재의 다양화로만 보기는 어렵다. 초기시에서 다룬 전쟁이 후기시에서 다룬 전쟁보다 소략하다거나 협의의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시인의 고고학적 사유가 시간을 만나 발효됨으로써 깊이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시와 후기시 양자 사이에 위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드러나거나 변모하는 시적 주체의 태도가 있다면 그에 주목하는 논의가 충분히 선행될 필요가 있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전쟁을 여성 민중-청년의 시선으로 다루다가 여성 이방인의 시선으로 다루며 추체험만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낸다. 후기로 갈수록 고고학적 사유와 탐사적 시선이 강화된 점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전쟁과 문서 바깥의 자리에서, 전쟁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존재들을 복원하려 한 허수경의 시도는 여성주의적 전쟁시의 계보를 새롭게 썼다는 면에서 더 주목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허수경의 시세계 안에서 전쟁을 다룬 주요 연작 시편들이 각기 어떤 전쟁의 기억을 표상하고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시집

- 허수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2010(3판)(초판 1988).
_____,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_____,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난다, 2022.

산문집

- 허수경, 『너 없이 걸었다—뫼스터』, 난다, 2015.
_____,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_____, 『가기 전에 쓰는 글들』, 난다, 2019.

단행본

- 김기진·전갑생,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2013년 합천』, 선인, 2012.
아를레트 파르주, 김정아 역, 『아카이브 취향』, 문학과지성사, 2020, 92쪽, 113-114쪽.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47쪽.
일레인 스캐리, 메이 역, 『고통받는 몸—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봄, 2018, 134쪽, 181쪽.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50-56쪽.
_____,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1, 188쪽, 252쪽.

논문 및 평론

- 공현진, 「허수경 시의 서울 표상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36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7, 361-377쪽.

- 구명숙, 「한국전쟁기 노천명과 모운숙의 전쟁시 비교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7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59-82쪽.
- 김진선, 「허수경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성 연구—전쟁 관련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5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259-297쪽.
- 백선율·이경수, 「허수경 시의 공동체 의식 연구」, 『국제어문』 제93호, 국제어문학회, 2022, 139-173쪽.
- 송기원, 「해설-저주와 은총의 사랑」, 허수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2010(3판)(초판 1988), 147-152쪽.
- 신경숙, 「발문-詩로 가는 길」, 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91-108쪽.
- 오형엽, 「허수경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 159-189쪽.
-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김혜순·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 이지은,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124쪽.
- 이혜원,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과 생명 의식」, 『문학과 환경』 제18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9, 135-166쪽.
- 전명환·이경수, 「허수경의 언어공동체 의식과 방언시 작업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72호, 우리문학회, 2021, 455-489쪽.
-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 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71-304쪽.
- 황선희, 「한국 현대 여성시의 아이러니 연구—김승희·김혜순·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239쪽.

기타

- 세화 편집부, 「원자 폭탄」, 『화학대사전』, 세화, 200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04751&cid=60227&categoryId=60227>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누리집. <http://www.krchwc.or.kr/>

Abstract

The Archives of War and Women—Heo Soo-Kyung’s World of Poetry

Hwang Seonhui

By focusing on Heo Soo-Kyung’s war-related poems,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oint of divergence between the poems of the previous generation of female poets and Heo Soo-Kyung’s war poems. Depictions of war in Heo Soo-Kyung’s poetry include not only the Korean War but also the terrible pain caused by the atomic bomb as well as imperial violence. Beginning with her first collection of poems, Heo Soo-Kyung has demonstrated insight into war and has indirectly conveyed the horrors that follow war. In Heo Soo-Kyung’s war poems, women remember and record the daily lives of people left to survive in the aftermath of war. As a female poet belonging to the generation that experienced war indirectly, Heo Soo-Kyung uses archaeological methods to archive small bits and pieces that exist outside the written record. The “women’s time” that Heo Soo-Kyung discovers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not been captured by official history. This enables Heo Soo-Kyung’s war poetry to make the indirect experiences of war physical and shape the space of memory called the “body.” In Heo Soo-Kyung’s poems, sadness is treated as an emotion that expands and remembers the “small wars” of those who have been omitted from history or have disappeared since the war. As female strangers, Heo Soo-Kyung’s poetic subjects explore the weakest link broken by the war and make archives of things that have not been verbalized. In this context, Heo Soo-Kyung’s war poetry can be seen as possessing feminist attributes.

Key words: Heo Soo-Kyung, Women, war, archive, War Poetry, indirect experience, feminist war poetry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